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청지기 헌신의 주일 / 경기서지방회 청지기세미나

2025년 2월 2일(주일)은 <청지기 헌신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찬양예배는 경기서지방회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일시 : 2025년 2월 2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안양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

3.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025년 2월 2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첫날맞이 월삭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준비 : 임명순 사모, 정애자 권사
배종위원 : 한승훈 목사, 이광근 안수집사

4. 온성도 화목의 주일

2025년 2월 9일(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기관별 척사대회로 진행합니다.
행사준비 : 남전도회, 여전도회
참가팀 :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5.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4년 연말정산서/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신청서(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봉 한지석 이광근 정지혁 오동영 임명숙 임명자)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中),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함소리·함단(모로코-병가)

7. 2025년 2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1.4 ~ 2.1)

2/02(목)-한정일 성도(-1.5) 2/03(월)-김혜숙 권사(-1.6) 2/08(목)-임명숙 집사
2/08(토)-전기운 어린이 2/10(월)-공은주 어린이 2/21(금)-문수인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곡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1/26 박제연 집사
- 2/02 이광근 안수집사
- 2/09 임명자 집사
- 2/16 임명숙 집사
- 2/23 김혜숙 권사
- 3/02 정애자 권사
- 3/09 박제연 집사

행사계획

| 날짜 | 행사내용 |
|-------|---|
| 02/02 |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청지기헌신의 주일 청지기세미나(안양중앙교회) |
| 02/09 | 온성도 화목의 주일(척사대회) 웃음이, 제기차기, 투호 등 |
| 02/11 | 제82년차 정기 자병회(세안교회) |
| 02/16 | 장학주일(장학금 수여) 교육부서 헌신주일 (부서별 특송)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하닌 사역소개(박제연) |
| 16~28 | 전교인 축복 대심방 |
| 02/18 | 경기서 지역교회 2월 정기총회 |
| 02/23 |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
| 03/01 |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

주일 사랑 운행

| 요일 | 운행안내 |
|----|---|
| 주일 |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
| 귀가 |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
| 평일 |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예배안내

| 구분 | 분시 | 간 |
|---------------------|-----------|----------|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11:00 |
| 주일오후예배 | 2부 | 낮 1:00 |
| 주일어린이예배 | | 낮 1:00 |
| 토요학생예배 | | 오후 4:00 |
| 주일청년부예배 | | 낮 1:30 |
| 수요저녁기도회 | 저녁 | 7:30 |
| 금요성령기도회 | 저녁 | 7:30 |
| 새벽기도회(월~토) | 새벽 | 5:30 |
| 화요중보기도회 | 낮 | 2:00 |
| 목요구역예배 | 낮 | 2:00 |
| Who made the world? | (상담 후 진행) | |
| Thinkwise(마인드맵) | (상담 후 진행) | |
| 쉐마학당 | (상담 후 진행) | |



주사랑 8권 5호 | 창립 2017.11.25 | 2025년 2월 2일
주현 후베헤 주/ 청지기헌신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02월 2025

소망과 인내의 달

2025포어 섬기고 전하는 교회

두루 다니며 전파하고
가르치며 섬기는 교회
[마태복음 4:23]

- 1일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2일 수절)
- 2일 청지기헌신의 주일 / 청지기세미나 (안양중앙교회)
- 9일 온성도화목의 주일 (척사대회, 제기차기, 투호)
- 11일 제82년차 경기서지방회 정기회의 (세안교회)
- 16일 장학주일 [장학금 수여]
교육부서 헌신의 주일 (부서별 특송)
- 17일 전교인 축복 대심방 (17~28)
- 18일 경기서지방회 교역자회 정기총회
- 23일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없이로다 (롬 5:1, 3~4)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청지기 헌신의 주일) 인도: 집례자

※ 목도 시편 135:1~3 다 같이

※ 찬송가 찬 383장 다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사도신경 다 같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이

성시교육 No.82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찬송가 찬 304장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대표기도 이광근 안주잡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성경봉독 에베소서 4:11~16 이광근 안주잡사

특송 찬 323장 직원 일동

광고 인도자

※ 성찬예식 찬 228장 집례자
(배종위원 : 이광근 안주잡사)

말씀인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청지기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595장 다 같이
(헌금위원 : 한희락 학생)

※ 축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일조 : 문동진·임명자·오동영·임명숙·이광근·박제연·임명순·장사라·정애자·한은총

주정헌금 : 김혜숙·문재효·박제연·이광근·임명순·임명자·정애자·한승훈

감사헌금 : 박태성·이광근·박제연(자녀)·전복순·한승훈·임명순

교회학교 : 이재아·이재우·이재희·임명순·한은총·한태민·한희락

전도헌금 : 장세경·장세규·최민희·장연우·장은비·장지우

구역헌금 : 김혜숙·박제연·한승훈·임명순

선교헌금 : 한태민·전신지·하나·민성경·독서연구팀

건축헌금 : 정애자·한태민

후원헌금 : 안양중앙교회·소망세광교회·희망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여호수아 15:1~19 (구 342)

말씀제목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요건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13 (신 279)

말씀제목 가장 귀한 은사 사랑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왕상 18:30~46 (구 548)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하나님을 선택하라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19:24~51 (구 815)

말씀제목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대 뜻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2일일 수 15:1~19 축복을 성취하는 조건들

3일월 수 15:20~63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4일화 수 16:1~10 생명보다 귀한 영영한 기업

5일수 수 17:1~18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6일목 수 18:1~28 크기보다 중요한 가치

7일금 수 19:1~23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8일토 수 19:24~51 땅을 주신 주님이 가대 뜻

9일일 수 20:1~9 소위보다 중요한 관계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가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국외선교(오주교훈소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⑥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 57:15)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시키려 함이라
- ⑦ 하나님은 외식하지 않는 참된 경건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죄를 엄중히 지적하셨는데 금식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사 58:6~11)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 멍에의 줄을 () 압제 당하는 자를 () 모든 멍에를 ()이 아니겠느냐 또 ()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을 집에 들이며 ()를 보면 입히며 또 네 ()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와 ()과 ()을 제하여 버리고 ()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 같을 것이라
- ⑧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은 무엇인가요? (사 58: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 ⑨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사 59:1~3)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에, 너희 손가락이 ()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을 말하며 너희 혀는 ()을 냄이라
- ⑩ 여호와께서 자기 죄를 자백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인가요? (사 59:20)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옆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장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의 영광된 나라에 초청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사 55:1)

오호라 너희 ()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②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사 55:2~3)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뻐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③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 5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 그리하면 그가 ()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시리라

④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하셨나요?(사 56:1~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를 지키며 ()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⑤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 선포하신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가요?(사 56:6~8)

또 ()하여 그를 섬기며 ()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라 이는 내 집은 ()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미국 감리회 선교본부가 조선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선교본부 이사이 한 사람이었던 존 가우처 목사가 서부지역 여행을 마치고 1983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떠나는 열차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8명의 <조선견미사절단>을 만남을 갖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¹⁾. 가우처 목사는 그들과 3일 동안 만남을 갖으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조선 견미사절단과 만난 해 11월에 선교본부에 2,000 달러를 보내며 조선에 선교사 보내기를 건의했고, 선교본부는 3,000 달러를 더해 일본 선교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1884년 1월에 매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을 방문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하도록 재촉하고 조선에서 선교사업에 필요한 토지 구입비용도 알려주면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클레이 선교사는 일본 및 조선 주재 미국 공사와 상의하고, 1984년 6월 부인과 함께 제물포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서 미국 공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가 일본 선교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서울로 와서 고종 임금에게 청원서를 내어 선교사의 의료 및 교육사업 허락을 받는 데는 미국에 있는 가우처 목사의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과 조선의 개화파 정치가인 김옥균의 공로가 컸습니다.

매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도쿄의 日英大學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이 되었지만, 이 학교의 설립을 처음 1882년에 제안과 학교 부동산 매입을 위해 5,000달러, 일본인 교수의 월급을 위해 5년간 매년 800달러 씩 기부한 것도 가우처 목사였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오랜 기간 선교사업에 열정을 쏟아 인도, 중국, 일본에서의 선교를 위해 크게 기여했고, 조선의 선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선교 사업 지원을 위해 여섯 번 단기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07, 1910, 1913, 1915, 1919, 1920).

참고 _____

신철호·김주창, 「한국 선교의 파이어니어」, 양화진, 2024, pp. 56~57.

1) 대표 민영익, 부대표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 8명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서 | 예배진행 | 인도자 | BC | 오늘 본문의 연표 | Bible |
|----|------|-------------|-----|-----------------|------------|
| 1 | 사도신경 | 다 같이 | 895 | 복조 바아사의 침입 | 왕상 15:17 |
| 2 | 찬송가 | 찬 309장 | 895 | 제2차 남북조 전쟁 | 대하 16:1 |
| 3 | 대표기도 | 자녀 중 | 886 | 복조 엘라의 등극(~885) | 왕상 16:8 |
| 4 | 성경봉독 | 왕상 18:30~46 | 885 | 복조 시므리의 모반 | 왕상 16:16 |
| 5 | 말씀인도 | 하나님을 신뢰하자 | 885 | 오므리 왕의 등극 | 왕상 16:23 |
| 6 | 합심기도 | 다 같이 | 824 | 아합의 등극 | 왕상 16:29 |
| 7 | 헌금기도 | 찬 284장 | | 엘리아의 시역 | 왕상 17:1-24 |
| 8 | 주기도문 | 다 같이 | 872 | 남조 여호사벳의 등극 | 왕상 22:42 |

■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아와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이 다시 만나서, 누구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온 자인지에 대한 설전을 벌입니다.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벌어지고, 결국 바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아를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 하기 위해(요 17:3) 우리는 엘리아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엘리아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 내리기를 실패하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아직 엘리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영적 실패를 본 백성들은 그제서야 엘리아의 말을 듣고 엘리아의 선지자적 권위에 주목합니다.

엘리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제단을 새롭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갈멜산에서 쌓았던 여호와와 제단이었고, 그것이 파괴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었던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들을 헐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아가 여호와와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재건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굽과 12지파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엘리아는 이것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제단을 재건하면서 일깨워준 것입니다.

결국 갈멜 산에서의 이 영적 대결의 목적은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단절된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잊혀진 언약을 반영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그 우상을 만든 황폐한 마음의 제단부터 수축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엘리아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준비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랑을 깊게 파고 4개의 통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붓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들에 물기가 가득하고, 흘러내린 물이 도랑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제물 태우는 것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이 결코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더 오래도록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고후 12:9).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자기 열심만으로 자기의 뜻을 구했던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엘리아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와 제단에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합니다(시 42:2). 엘리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임을 증명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대하 20:17).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보다 다소 짧고, 소란스럽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는 중심의 기도였습니다(마 6:33).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 말고는 엘리아에게 유리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대하 20:12).

셋째, 엘리아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엘리아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큰 폭우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와 징벌이 끝났다는 선언이며,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선지자 엘리아와 가뭄의 재앙에 대해 다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요 2:11).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아는 비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대하고, 일곱 번이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갈멜 산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잘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호 손바닥 크기 만한 구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조각구름을 하나를 보고도 확신을 갖습니다. 아합이 비로 인해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도 이스라엘로 올라가 위해 출발합니다. 그때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하자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도 빨리 달려갑니다. 이렇게 엘리아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듭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아처럼 무너진 믿음의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위해 일하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